

4·19혁명 '조대부고생 활약' 재조명 목소리 높다

조대부고생 600여명 시위 참여 위해 교실 창문 깨고 옛 도청으로 다른 학교 학생들 참여 도우며 시위대 선봉에서 경찰과 육탄전 "서석초 구금 700여명 중 조대부고생 78명...정부 포상 4명 불과"

1960년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에 격분해 시민·학생이 들고 일어난 4·19혁명 당시 조선대학교 부속고등학교 학생들의 활약을 재조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승만 정권 하야를 요구하며 옛 전남도청 앞에서 치열하게 대치하다 경찰에 체포돼 서석초등 학교 강당에 구금된 700여명의 시민·학생 시위대 가운데 10% 이상이 조대부고 학생들이라는 증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조대부고 4·19 기념사업회는 지난 2월 초 국가보훈처에 4·19혁명 당시 시위대 선봉에 선 조대부고 학생 2명(양재근·한상우 씨)에 대해 포상신청을 했지만, 올해 4·19 정부 포상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18일 밝혔다.

4·19 당시 광주에서 시위에 참여한 학교는 총 11곳(광주여고·광주고·광주공업고·광주농업고·광주상업고·광주수피아여고·광주송일고·조대부고·광주사범학교·광주제일고·전남여고)이었다.

시위를 주도한 학교는 광주고로 알려졌다. 광주시위를 최초로 논의했던 곳이 광주시 동구 계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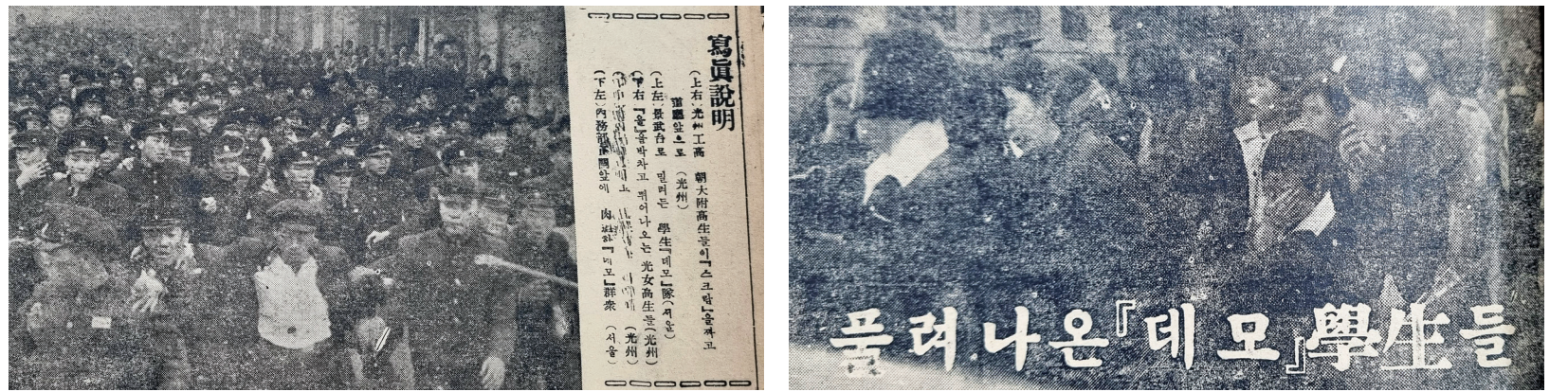
의 광주고 학생의 하숙집이라는 점에서.

당시 광주고 학생이던 김충언·이홍길·하성수씨 하숙집에서 같은 학교 3학년 김동운·김병욱·김선담·김중언·박상욱·박정명·신강식·이홍길·조병수·지부일·최수천·하성수·홍갑기씨 등이 모여 4·19혁명을 최초로 논의했다는 것이다. 이에 광주시 동구는 지난해 7월 계림동 이 하숙집 터에 기념석을 설치했다.

하지만 4·19혁명을 최초 논의한 자리에는 조대부고 학생도 한명 포함됐다. 당시 3학년이었던 전만길(81)씨가 바로 그였다.

오전 10시에 행동에 나선 광주고 학생들이 경찰과 교사들의 삼엄한 감시를 뚫고 나오는데 시간이 지체됐고 이에 낮 12시에 출발한 조대부고 학생들이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다는 것이 당시 조대부고 학생들의 말이다.

이들은 시위대 선봉에서 경찰들과 투석전·육탄전을 벌였다. 경찰은 최루탄, 물대포 소방차, 공포탄을 앞세웠고 시위대는 밤까지 밀고 물리기를 반복했다. 결국 밤 9시 20분께 당시 광주경찰서 앞에



4·19 혁명에 참여했던 광주고, 조대부고생 등이 옛 전남도청으로 향하고 있다.(왼쪽) 오른쪽은 당시 시위에 참여했다가 서석초에 구금된 학생들이 풀려나고 있는 모습. <광주일보 DB>

운집한 시위대에 경찰 돌격대가 실탄 사격을 하면서 7명의 사망자와 5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나머지 시위대들은 대부분 붙잡혀 구금됐다. 당시 시위대가 너무 많아 경찰서에 모두 구금할 수 없어 인근 서석초 강당에 학생과 시민들 700여 명이 구금됐다. 구금기간 동안 하루에 죽밥 하나만 먹고 버텼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금됐던 조대부고 학생은 78명으로, 적지 않은 숫자였다.

조대부고 1학년이었던 한삼우씨는 당시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한씨는 "군인들에게 끌려오는 과정에서 개머리판으로 어깨를 맞아 부상을 입기도 했다"며 "최동운 체육 선생님이 교장선생님과 함께 버스 두대로 데리러 와 조대부고 학생 수십명이 버스에 올라탔다"고 회상했다.

다만 이때 구금된 조대부고 학생들의 명단은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와 동시에 폐기돼 이들의 활약을 증빙할 만한 자료는 없다.

학생들은 교사들의 눈을 피해 작전 내용이 담긴 쪽지를 교실로 들였고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를

알리는 종소리가 나면 뛰쳐나가기도 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이탈을 우려해 교실 앞 뒤 문을 막고 서있었지만 학생들은 종소리와 동시에 유리창을 깨 부수고 달려나갔다는 것이다.

한씨는 "당시 조대부고는 교문이 없었고 대다수 경찰이 광주고 앞에 상주하고 있어 비교적 수월하게 학교를 벗어날 수 있었다. 덕분에 30~40분만에 아무도 지키고 있지 않은 옛 전남도청에 도착했다"며 "도청으로 향하는 길에 담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광주고 학생들을 교문 밖으로 끌어냈고 광주고 후문 판자를 부수 낼 수 있게 도왔다"고 말했다.

한씨의 주장은 광주일보 1960년 4월 23일자 신문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당시 기사에 실린 사진에는 조대부고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거리로 나서는 모습이 찍혔고 사진에는 "광주고, 조대부고 학생들이 스크램을 짜고 도청 앞으로"라는 설명이 붙었다.

또 같은 날짜 '풀려나온 데모 학생' 제목의 기사에는 "광주지구 게임사무소에서는 4·19학생 데모 사건에 관련해 연행된 693명의 학생 및 일반인은 그동안 광주 서석국민학교에서 집단 수용 중에 있다가 21일 심사를 마치고 5명을 제외한 전원이 석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대부고 졸업생들은 "당시 참여한 인원이 600여명이 넘었지만 이 같은 활약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에서 포상을 받은 이들은 전체 4명에 불과하다"며 "당시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못해 아쉽다"고 입을 모았다.

양재근 조대부고 4·19 기념사업회장은 "상당수의 조대부고 학생들이 서석초에 일주일 가량 구금됐고 가장 먼저 도청을 수복했으며, 가장 먼저 교문 밖으로 뛰쳐나왔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릴 생각을 하지 못했다"며 "한 학교만의 영광이 아닌 조대부고를 비롯해 많은 학교들이 함께했음을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합평 '황금박쥐상' 현재 몸값은?

18년만에 금값 5배 올라 140억 추정...나비축제 기간 공개

금값이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합평 황금박쥐상(사진)의 가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19년 3월 당시 황금박쥐상이 85억원대 가치가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이를 훔치려던 3인조 절도범들이 붙잡히기도 했기 때문이다.

합평군은 "최근 금값이 올라 황금박쥐상의 현재 시세는 약 140억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지난 2005년 28억 원 상당의 순금 162kg과 281.39kg 등을 구입해 3년 뒤인 2008년 2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들여 황금박쥐상을 제작했다.

한국거래소(KRX)의 금 시세를 보면 국내 금 1g은 지난달 14일 사상 처음으로 8만원을 넘었고, 18일 현재 8만 4700원을 기록하고 있다. 18년만에 가치가 5배 가까이 오른 것이다.

당시 군은 1942년 이후 한반도에서 멸종한 것으로 알려졌던 황금박쥐(환경부 지정 멸종위기포유동물 1호)가 1999년 합평군 고산봉 일대에서 발견되자, 이를 관광상품화 하겠다 황금박쥐상을 만들었다.

거북 형상의 기단 위에 가로 1.5m, 높이 2.18m로 은으로 제작한 원형 안에 4마리의 순금 황금박쥐가 서로 교차하고 있으며 중앙 상단에 대형 황금박쥐 1마리가 웅장한 날개를 펼치고 있다.

황금박쥐생태전시관에 설치된 황금박쥐상은 애초 상설전시를 목적으로 했으나 관람객이 얼마 없



어 적자가 계속돼 매년 나비축제(5월)와 국왕축제(10월) 기간(각 1주일 내외)에만 볼 수 있다.

이에 군은 올해에도 오는 28일 합평나비축제를 개최함에 따라 황금박쥐생태전시관도 개관한다는 방침이다. 매년 순금 황금박쥐 작품 보편료로 예산 2000만원을 지출하고 있어 상설개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합평군 관계자는 "황금박쥐상은 방탄유리로 제작된 틀 안에 있고 CCTV 등을 통해 범행에 대비하고 있다"며 "다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전시관 자체를 합평 엑스포 공원으로 옮기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유병길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중도 사퇴

시교육감 고교동창 논란 속 임용 7개월만에

유병길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이 건강상 이유로 사퇴했다.

광주시교육청은 18일 "유 감사관이 최근 건강이 급속히 악화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고교동창 논란 속에 지난해 9월 1일 임용된 지 7개월 만이다.

시교육청은 전날 유 감사관을 사직 처리하고, 직무대리에 강성도 청렴총괄담당 서기관을 보임했다. 유 감사관은 자신의 인사 등을 두고 광주교사노조의 감사 청구에 따라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다.

유 감사관은 3월 하순부터 3주 가량 병가를 내고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건강 상태가 크게 호전되지

않아 사직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기동창으로 지난해 9월 개방형 감사관(3급)에 임용된 유 감사관은 그동안 교육단체와 노조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아왔다.

광주교사노조는 지난 2월 유 감사관을 비롯한 '인사 비위'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광주교사노조는 이날 "감사 중인 대상은 관련법에 따라 의원면직이 제한되므로 감사가 끝난 뒤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감사 결과에 따라 광주시교육감에 대한 고소고발 등 법률적인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 어린이 놀이시설 75건 '부적정'

광주시 감찰, 43건 시정 요구

광주시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감찰해 부적정 사례 75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2월부터 진행된 안전 감찰에서 지역 내 2177개 어린이 놀이시설을 대상으로 안전 검사·점검·진단, 보험 가입, 관리자 안전 교육 이수 여부 등을 확인했다. 보험 가입 미입력, 안전 점검 미이행, 안전교육 미이수 등 위반 사례 32건이 드러났다.

광주시는 관리·감독 책임 공무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자치구 감사부서에 요구했다. 또 즉시 조치가 필요한 안내간판 관리 미흡, 기구 파손, 주변 정비 미흡 등 43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박남주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은 "지난해 12월 온라인 설문에서 시민들이 안전 감찰 주제 1순위로 어린이 놀이시설을 꼽았다"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시스템에 안전 점검 결과를 주기적으로 입력하도록 제도 개선도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2023년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교육·사업화

사업장 문제 진단 및 개선 방안 모색부터 보조금 지원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경영개선을 통한 사업안정화 추진의 의지가 있는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교육과 사업비를 지원해드립니다.

교육+멘토링+자금(최대 2천만원/자부담금 50%별도) 지원

1. 신청대상

- ①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보유 소상공인 중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전년 대비 20% 감소 또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한 소상공인
 -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CB) 744점 미만 소상공인 ((구)신용등급 5등급 미만)
 - 최근 3년 이내, 또는 해당 기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소상공인
 - 코로나 경영위기 등으로 매출액 감소폭이 큰('19년 대비 3년간 20% 이상) 소상공인

2. 지원항목

- ① 교육 지원
 - 경영개선 교육 30시간(사례학습, 소비트렌드, 상권분석, 재무, 기술 등)
- ② 사업화 지원
 -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화 교육 10시간
 - 멘토링 지원: 사업장별 관련 분야 전문가 매칭 후 상시 자문
 - 사업화 자금 지원: 최대 2,000만원(인테리어, 마케팅 홍보, 온라인판로, 브랜드 개발 등)
 - *인테리어는 국고보조금 총액의 50% + 현금 자부담 50% 초과 집행 불가

3. 사업비구성 예시

(정부지원 50% + 자부담 50%)

- ① 1인당 최대 4,000만원
 - 지원금 2,000만원(50%) + 자기부담금 2,000만원(50%)
 - 자기부담금 2,000만원 중 최대 1,400만원은 인건비, 시설, 설비, 사무실 임차료로 집행 가능(최대 70%)

4. 신청기간 및 접수

- 4월 28일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ope.sbiz.or.kr) 온라인 신청

5. 사업 문의

- 광주-전라남도/제주권 사업지원기관 (주)세종경영연구소
 - 호남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14, 1545호
 - 영남사무소: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25, 3층
 - 제주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주시 연복로 45, 710호
 - Tel.070-4322-6425~6, 6428, 053-716-0851

